창간 17주년 기념사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은 양돈인의 의무

전 동 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양돈인들의 대변지인 월간 양돈지가 7월 1일로 창간 1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국내 양돈산업을 선두에서서 이끌어 온 월간 양돈지의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국에 계신 양돈인 여러분과 양돈 관련 기관·단체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옥고를 보내주신 집필진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광고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월간 양돈지는 지난 79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국내 양돈업계의 기술 수준이란 보잘 것 없었고, 양돈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양돈전문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양돈전문지로서는 유일하게 월간 양돈지가 창간되었고, 월간 양돈지는 지난 17년간 세계의 선진 양돈기술과 정보를 양돈인들에게 제공하면서 국내 양돈산업을 세계속의 양돈산업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창간 17주년을 맞으면서, 월간양돈지는 국내 양돈산업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양돈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돼지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을 1년 앞두고, 우리 양돈업계는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에 봉착해 있습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해 값 싼 외국산 돼지고기가 국내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갖춘채 대기하고 있고, 이달부터는 냉장 돼지고기마저 유통기한이 자율화돼 수지만 맞으면 언제든지 수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가 금년에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MMA물량은 2만3천톤에 달하고, 추가로 1만톤을 수급조절용으로 더 수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은 SPS규정을 들어 수입축산물과 동등하게 국내산 축산물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국제 사료곡물 가격은 곡물파동까지 예고하면서 장기화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양돈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가축

분뇨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당국의 단속 손길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탄강과 임진강의 물고기 떼죽음 예에서 보듯, 국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거부감은 이제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사료곡물 가격 상승 여파로 생산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합사료 가격이 평균 11.6% 인상되었고, 돼지 질병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창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안전 식품에 대한 요구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같은 사정을 감안,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발족시켜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번 달부터 농림수산부에서는 육류의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강화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시판을 금지하고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돼지 생산비도 경쟁상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국내외 여건하에서 국내 양돈산업이 어떻게 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동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업계의 십 수년래 숙원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용과 명실상부한 자조금제도의 입법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돼야 합니다. 양돈장에 큰 피해를 입히는 주요 전염병과 소모성지병은 조기에 박멸해야 하며,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금리인하 추세와 발맞추어 시설 자금에 대한 금리도 대폭 내리고, 융자기간도 대폭 연장해야 합니다. 수입개방시 탈락이 예상되는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이로 인해 발생되는 생산기반의 확충문제도 심각히 생각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와함께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의 생산입니다. 소비자단체와 정부기관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축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강화할 것이 틀림없고, 언론기관에서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비중있는 기사로 다룰 것입니다. "고름우유"와 영국의 광우병 파동에서 보듯이,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이제 산업의 존폐를 가름할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은 양돈산업을 지키는 길이며, 외국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누가 검사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양돈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월간 양돈지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양돈업계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위에 열거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월간 양돈지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